신계사 템플스테이 北 반응 '긍정적'

원행 스님, 조불련에 제안
금강산서 건립부지 상의도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2월 13일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계사 경내에서 템플스테이 제반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상의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같은 날 오전 외금강 해맞이 행사에서 남측대표로 연설문을 읽는 원행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제공=조계종

지속적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실현 의지를 피력해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강수린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을 만나 가능성을 타진해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북측 불교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2월 14일 기자들과 만나 앞서 12~13일 금강산서 진행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가 성과를 밝혔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덕조 스님이 불교계 대표인사로 참가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원행 스님은 북한불교계를 대표하는 강수린 중앙위원장과 차금철 서기장을 신계사에서 만나 그간 국내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피력해온 금강산 템플스테이 사업을 직접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원행 스님에게 템플스테이관 건립 부지를 먼저 제안해 상의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행 스님과 강 위원장이 직접 대면 접촉해 남북 불교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덕조 스님은 "원행 스님과 강 위원장, 차 서기장은 식사를 하거나 행사장 내 이동 중 신계사 템플스테이, 점등식, 사찰림 조성 등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신계사 방문 시 강 위원장이 먼저 원행 스님에게 신축 건물을 세울만한 부지 선정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다. 모든 사업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은 없었지만 상호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월 14일 사회부 기자 브리핑
남북불교 최고 지도자 첫 만남
공동 봉축행사 등 협의 이어가
문화교류 협력사업 탄력 전망

앞서 조계종은 꾸준히 북측에 문화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제안해왔다. 원행 스님은 연대모임 행사에서 범종교계와 함께 신계사를 참배한 뒤 법당에서 직접 공식 서한을 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한은 남북 공동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방북과 초청, 신계사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과 전통문화유산 활용, 사찰림을 중심으로 한 양묘 사업과 복원 사업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사회부는 사업 구체화를 위해 중국 심양서 대면 접촉을 추진하고, 조불련 측에 팩스 발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사회부에 따르면 종단은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북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행사 규모, 건물 단면도 등을 서류를 보내 실무적인 선에서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덕조 스님은 "우리 불교계가 이룬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인 신계사를 전체 참가자들이 방문하고 7대 종교 수장들이 함께 참배한 것은 무척 의미 있다. 지난 10년간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가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는 날까지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모임 행사는 1일차에 전체 모임 및 종교계를 비롯한 단위별 대표모임, 2일차는 외금강 해맞이 행사 및 원행 스님 대표 연설, 신계사 참배 등이 진행됐다. 종교계 대표모임은 양측 종교 지도자들의 상견례 차원서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둘째 날 삼일포 앞 바다서 일출을 보며 한국 대표로 "지난해 남북 정상의 만남이 곧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또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100년 전 시작된 3.1운동은 이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통일로 귀결돼야 한다. 차이와 다름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연설했다.

올해 봉축표어 '마음愛 자비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2월 13일 발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12일) 봉축표어로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을 선정했다. 봉축위는 2017년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본 슬로건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봉축표어를 별도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봉축표어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면서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축위는 "모든 존재가 존귀함을 선언하고, 모든 삶은 자신 스스로 주인공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삶의 주인인 자신을 알아 자비정신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모두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등회는 5월 3일 전통등 전시회와 4일 어울림마당 및 연등행렬, 5일 전통문화마당 등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윤호섭 기자

탄허강숙 올해 1학기 4개 과목 개설

대승기신론 · 선문촬요 · 능엄경 · 선문염송 등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한문 전문교육기관인 탄허강숙에 올해 1학기 〈대승기신론〉 〈선문촬요〉 〈능엄경〉 〈선문염송〉 등 4개 과목이 개설된다.

탄허강숙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목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에서 2019년도 1학기 강의를 실시한다.

강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일 다른 주제로 강연한다.

먼저 월요일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성본 스님의 〈대승기신론〉으로 문을 연다. 화요일에는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선문촬요〉를, 수요일에는 동국대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선암 스님이 〈능엄경〉을, 목요일에는 동국대 외래교수 문광 스님이 〈선문염송〉을 강의한다.

수강료는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 전과목 수강 시 55만원이다. 과목별로 선착순 30명 마감하며 신청희망자는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 또는 전화(02-732-2403)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승기신론〉을 강의하는 정성본 스님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고 〈중국선종의 성립사연구〉, 〈임제록〉(역주), 〈무문관〉(역주), 〈벽암록〉(역주), 〈돈환본 육조단경〉(역주) 등을 출간했다.

〈선문촬요〉를 강의하는 이상하 교수는 고려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십지경론〉 〈십송률〉 〈경허집〉 〈월사집〉 등을 번역했다.

〈능엄경〉을 강의하는 선암 스님은 능엄학림을 졸업한 월운 스님 전강제자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융합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문염송〉을 강의하는 문광 스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와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 등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本紙, '생명나눔' 운동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2월 12일 홍보 제휴 협약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등
연중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일반인 생명살림 동참 유도



박종수 本紙 사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本紙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 실천운동에 나선다.

현대불교신문(사장 박종수)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 12일 서울 종로구 생명나눔 법인 사무실서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本紙는 신문 지면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다양한 생명나눔운동을 알리게 된다. 일반인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도 홍보한다.

협약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주변의 많은 인연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보태고 있다"며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하기에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나눔 문화 진작에 힘 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은 "생명을 나누는 일은 곧 '공생'이라고 생각한다.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 역시 공생의 실천"이라며 "평소 생명나눔에 관심이 있었다. 추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생명나눔을 위한 활동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장, 찰리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

글=김지원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양산 통도사 등 문화재 안전진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4월 1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제290호) 등 국가지정 및 시 · 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 전국의 주요 문화재 2,010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방기가 포함되는 2~4월경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대비 해당문화재 안전상태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폐쇄회로 TV 등) 작동상태 △전기 · 가스시설 안전상태 등 문화재 · 방재설비 내용 △현장별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여부 등이다.

문화재청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송탄 송덕사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천도의식을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는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희생한 각국의 고마운 군인도 많았습니다. 올해 본 사찰은 송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미군 전사자를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영가) 33위당 1등, 봉헌금 1만원, 영가당 10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장소 : 천태종 송탄 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입니다.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그만큼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덕사